**Korean J. Org. Agric.**
Volume 27, Number 3: 307-325, August 2019
http://dx.doi.org/10.11625/KJOA.2019.27.3.307

ISSN 1229-3571 (Print)
ISSN 2287-819X (Online)

# 농촌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변화 분석
## - 충남 아산시 송악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고 경 호*

# Analysis on Regional Variation in Educational Community Formation of Rural Village
## - Case Analysis of Songak in Asan-si, Chungcheongnam-do -

Ko, Kyung-H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ional variations in which appear during the formation process of educational community in rural village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theory.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activities to form an educational community of the Songak villag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variations across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beyond an innovation of public education within the region based on interrelation between schools and villages. In other words, the activities including interactions and group learning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mong the various relevant stakeholders, thereby resulting in a variety of positive variations such as expanded regional welfare base, activated voluntary residents community gatherings based on the unity and cooperation, broadened socioeconomic opportunities, satisfaction on educational and cultural desires, and construction of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 in the regio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uitable for each region needs to be established by embracing the fact that activities to form a village educational community entail significant implication and value as the comprehensive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across the entire domains in each region.

Key words : *regional innovation, educational community, interaction, promoti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Khko0419@dankook.ac.kr)

# Ⅰ. 서 론

초 연결성과 사물의 초 지능성, 혁신적 기술 등의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학력 만능의 기존 입시와 서열 위주의 획일적 경쟁교육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육성계획'(2019~2023)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OECD (2010)도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사회적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등 크게 3가지 범주에서 다양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을 적용한 교육혁신 정책과 다양한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이 본격 부각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교육공동체운동과 농촌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마을공동체만들기 운동 등의 흐름 속에서 실천되어 오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론이 일부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비록 한계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관점의 일대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은 교육의 혁신을 넘어 지역의 사회·경제·교육문화·생태환경 등 전 영역에 걸친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론의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지역의 사회·경제·교육문화·생태환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즉, 지역혁신론의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 지역변화와의 상호관계를 밝힘으로써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마을 주도형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아산시 송악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과 지역변화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가지는 지역혁신 활동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지역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혁신

지역혁신론의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은 지역 단위에서 교육혁신을 매개로 하여 추진되는 종합적인 지역혁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은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둘째,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 셋째, 미래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혁신 활동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지역혁신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인 혁신은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상호작용적 관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혁신관은 지역을 강조하는 지역발전 이론과 정책적 사고로 이어지면서 지역혁신체제론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지역발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역혁신체체론은 지역의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즉 상호협력 및 공동학습, 지역발전을 추구하려는 공동의 관심과 의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문화적 분위기 등을 중요한 핵심 요소로 한다. 지역혁신체제론은 1990년대 초 영국의 경제지리학자인 Cooke 등(1997)에 의하여 제안된 이론으로, 지역 간의 산업적 역동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지역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인 ‘혁신’은 ‘체제’(System)적 성격을 띠며 이 혁신의 체제를 ‘지역’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관점은 주체들 간의 상호 교류 및 학습 네트워크의 질적 시너지 효과의 창출 여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나 요소 등을 중요시한다(Ko, 2017).

공식적으로 혁신체제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Freeman (1987)은 “국가혁신체제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흡수하고, 개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고, 지역혁신체제론 연구의 선구자격인 Cooke 등(1997)은 지역 단위로의 적용이 더욱 현실 적합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지역혁신체제란 기업이나 여타 조직이 뿌리내림(embeddedness)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통하여 상호작용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Cooke 등(1997)이 제시한 지역혁신체제론의 핵심내용으로는 혁신은 지역 내 각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 전파, 습득되며 이는 각 혁신 주체가 공유한 제도와 문화적 분위기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각 지역이 지닌 혁신의 장애와 문제점은 이러한 지역 내의 혁신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Kim et al., 2009).

1990년대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써 지역혁신체제론은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검토를 종합해 보면 첫째, 지역 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지역 내 관련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및 공동학습을 중시한다는 점 셋째, 각 혁신 주체가 공유한 제도와 문화를 강조한다는 점 넷째,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전파, 확산, 습득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 및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체와 역할, 교육내용 및 방식, 지향 목표 등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여러 연구 가운데 교육공동체를 '학교 구성원의 공동체', 즉,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로 규정하려는 관점에 입각한 연구와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학교 중심의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Yang, 2018).

본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그동안 선행연구들의 연구 방향성을 크게 교육행정 중심에 입각한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론'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대표적인 연구로는 Seo 등(2015)이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을 선도하였던 경기도교육청의 인식과 태도를 분명히 견지한 가운데 일부 지역 등의 교육현장에서 추진된 공동체 교육의 사례를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검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im 등(2016)은 미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과 캐나다의 커뮤니티 센터를 사례로 연구하여 국내(경기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수립의 방향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마을공동체만들기에 입각하여 마을 학교의 평생교육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로는 Yang (2014, 2015), Kim과 Lee (2015), Park (2009) 등이 있다. Yang (2014, 2015)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 학교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마을 학교가 주민 주체 역량 개발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능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Kim과 Lee (2015)는 마을 학교를 주체, 공간, 목적, 활동 측면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마을 학교의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마을 학교 개념 분석을 통하여 마을 학교가 마을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자 핵심 동력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학교와 마을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Yang (2008), Kang과 Kim (2012), Kim (2015) 등이 있다. Yang (2008)은 풀무지역 교육공동체 운동의 전

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농촌 해체와 마을 학교 폐교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 지역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농촌 학교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지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분석하였다. Kang과 Kim (2012)은 홍성군 홍동지역이 사례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양자 간의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를 위해 학교의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의 마련, 협력의 주도권을 지역으로 넘길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Kim (2015)은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이 학교개혁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앞서 밝혔듯이 학교 교육 중심 관점, 평생교육학적 관점, 마을교육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 지역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을 지역혁신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사회·경제·교육·문화·생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역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지역혁신론의 관점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마을교육동동체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변화를 탐색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 주도형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남 아산시 송악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연구대상

본 사례연구의 대상 지역인 아산시 송악면은 전형적인 농·산촌 마을로, 총면적은 아산시에서 가장 넓은 6,219 ha이며 이 중 해발 110~430 m에 이르는 임야가 총면적의 74%인 4,606 ha, 농지는 943 ha이다. 인구는 2018년 12월 현재 13개 행정리에 4.301명으로, 2010년 기준(3,649명)으로 최근 10여 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아산시 온양온천역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로 20여 분, 대중교통으로 50여 분 거리에 있는 비교적 아산 시내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송악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곳으로, 2018년 12월 ‘2018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한마당’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돌봄-나눔-배움-일과 경제가 어우러지는 지역순환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지역은 교육행정 당국이 주관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필요에 의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형성한 마을 주도형 공동체로 분류되는 곳이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경제 공동체, 복지문화 공동체, 친환경 농업 공동체로 진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면 소재 교육기관으로 거산초와 송남초, 송남중 등 3곳이 위치해 있다.

## 2. 연구내용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례지역의 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사례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와 다양한 마을 주민 조직 등 여러 기관 방문과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실천가로 활동해 온 주민 활동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 지역(마을)의 변화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개별 및 집단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개별 심층 면접조사는 학교관계자, 지역활동가, 지역주민 등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오랫동안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던 활동가와 지역주민 등 5명을 대상으로 모두 2차례에 걸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내용은 지역혁신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첫째, 혁신 관련 다양한 요인 중 관련 주체의 형성과정, 주체 간 상호작용적 활동, 매개·촉진 기제 등 혁신 요소에 근거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 지역(마을)의 변화와의 관계, 즉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지역이 사회, 경제, 교육·문화, 생태 환경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셋째, 개별 면담 및 집단 심층 면접조사 후에는 그 내용을 정리한 후 참여자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3. 분석 틀 및 내용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내용과 절차를 바탕으로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 지역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교육혁신을 넘어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내용과 절차, 방법

을 토대로 수립한 분석 틀 구성은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Table 1. Activity analysis for educational community formation of Songak village

| Analysis target | Analysis direction | Analysis detail |
|---|---|---|
| Innovator | - Background of appeared innovator<br>- Formation and variation of innovator | - Background of appeared innovator that needs to be solved<br>- Investment of human and visible resources for innovation |
| Interaction among innovators | - Elements for promoting interactional activity | - Space (Organization)<br>- Programs<br>- Residents community gatherings<br>- Events of village<br>- Communication measures for information sharing |
| Activity promotional mechanism | - Association between issues and existence of promotional elements for interaction | - Formation process of promotional organization |

Table 2. Regional variations appeared during formation of educational community in Songak village

| Analysis target | Analysis direction | Analysis detail |
|---|---|---|
| Performance of innovation activity | - Based on variations in social, economic, educational, cultural eco-environmental aspects | - Regional welfare base of each village<br>- Economic circulation model in region<br>- Satisfaction of educational & cultural desires from residents<br>- Sustainability in regional ecological environment<br>- Establishment of united and cooperative culture |

# Ⅳ. 연구결과

## 1.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분석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상호작용적 혁신관에 입각한 핵심 요소인 첫째, 혁신 주체는 존재하는지 둘째,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 및 공동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셋째, 이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기구 등은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 검

토하였다. 조사결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지역혁신 활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혁신 주체, 주체 간 활발한 상호작용, 촉진기구의 존재 등이 확인되었다.

### 1) 혁신 주체의 형성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핵심 주체들의 집단으로는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송악교회,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학교와 마을의 교육 관련 핵심 주체들의 네트워크인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 각 학교별로 결성된 학부모 모임인 '아빠 모임', 그리고 송남초와 거산초, 송남중학교 등 3개의 정규 교육기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 초기 혁신 주체의 등장 배경과 활동 등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결과, 이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초기 개별 주체는 거산초 폐교반대 운동 과정에서 등장한 학부모와 일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민 중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친환경농업인 등 일부 각성된 마을 주민과 개혁적 목회자, 공교육 혁신을 추구하던 일부 교사 등이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주체로 본격 등장한 것은 2000년 거산초등학교 폐교반대 운동 과정과 2004년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학교 밖 돌봄 교실인 '반딧불이 교실' 설립 과정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초기에 교육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반딧불이 교실'은 설립 당시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지역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면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개별 주체들이 마을의 필요에 의한 가치 중심의 조직을 형성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당시 IMF 이후 마을 내 조손가정 등이 급증하면서 이들 아동에 대한 마을 단위의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호응하는 일부 각성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약 45명 내외의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이 지역아동센터는 마을의 배려로 마을회관 내 마을문고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 간의 교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랑방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랑방은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와 마을 만들기 등 마을의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하였다. 센터는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공동학습을 촉진 시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실천 의지 등이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작용 및 공동학습의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각성한 주민들의 재생산 및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2004년 개관한 학교 내 마을도서관인 솔향글누리 도서관도 단순한 학교 도서관이 아닌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의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개별 주체 간 상호작용

을 촉진하였는데, 이는 주체들의 재생산과 성장, 학교와 지역 간의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도서관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서관의 탄생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주도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당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국내 대기업의 도서관 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학교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1층으로 이전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도서관으로 재개관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송남초와의 협력을 통하여 재개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 주민 사서를 고용하여 파견하였고,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마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은 학교와 마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주체의 재생산 등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거산초 폐교반대 운동과 돌봄 및 지역사회교육기관으로써,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각 관련 주체들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던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마을과 학교를 잇는 솔향글누리 도서관의 개관은 주체들의 재생산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 2) 주체 간 상호작용적 활동

혁신은 주체 간 상호작용적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혁신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상호작용적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되는 마을 기반의 공간, 프로그램, 주민공동체 모임, 공동체 행사, 정보공유 방법 등을 분석 틀로 하여 송악마을교육공동체의 상호작용적 활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간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인 ‘송악동네사람들’과 마을의 열린공간인 ‘놀다가게’, 솔향글누리 도서관,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송악교회 등이 존재한다. ‘송악동네사람들’은 2012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다양한 주민 공동학습 과정을 거쳐 2016년 2월 창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자조, 나눔연대, 공공성, 민주주의를 그 가치로 하는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추구한다.

‘솔향누리도서관’은 도서대출 외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의 교육문화복합공간이며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초기 거점 공간인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과 학습지도, 다양한 문화복지,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송악교회 역시 농업·농촌,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개별 주체 간, 그리고 마을과 도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오래 전부터 수행해 온 거점 공간이다.

둘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앞서 서

술한 공간 등에서 이루어진 공식적·비공식적 만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욱 촉진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첫 거점이었던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송악동네사람들'은 창립 전 준비모임 단계인 2013년 농어촌희망교육공동체 사업(송악온마을교육공동체 : 마을이 학교다)을 진행하였는데, 마을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이 곧 학교다', 온 마을 주민들이 교사 역할에 기여하도록 하는 ' 마을교사 아카데미', '대안에너지 학교', '청소년 마을 학교-청소년 인문학 여행', '청소년 마을 학교-마을 어르신 자서전 쓰기', '청소년 마을 학교-마을신문 만들기', '송악 청소년 연극단', '송악 청소년 마을밴드', '송악마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창립 후에는 마을문화공동체, 마을학습공동체, 자조자립의 마을경제공동체 등 온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향점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마을 주민 스스로가 교사와 학생이 되는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와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 등이 마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삶을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인 마을이 학교다(아동청소년마을학교, 마을진로아카데미, 진로인터십), 마을문화예술모임(마을연극단 '우정공', 마을청소년밴드 등), 마을 공정여행, 마을 장터와 축제, 마을순환경제의 장(놀다가게, 수요깨비장, 송악놀장 등) 등이 있다. '송악동네사람들'이 운영하는 '놀다가게'는 마을에서 생산한 차와 수공예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자, 마을 배움터와 모임방 기능을 하는 생활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솔향누리 도서관에서도 재미난 옛이야기 듣기, 북아트, 영화상영, 도서 장터, 아빠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캠프, 그림책 읽는 학부모 모임,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영상모임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송악교회 역시 방과 후 아동 공부방, 친환경농업선교회 활동, 농사 체험, 생태체험, 농촌문화 프로그램 등 마을 학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셋째, 마을 기반의 자발적인 주민모임과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관련 개별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적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민모임을 결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재 송악지역에는 학교별 학부모 모임을 비롯하여 마을연극단 등 취미 모임,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주목되는 모임은 두 개의 초등학교와 한 개의 중학교에 결성된 '아빠 모임'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과 마을을 기반 공간으로 하여 '아빠와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희망장학금 모금을 위한 먹을거리 장터도 지속해서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아빠 모임을 중심으로 축구, 배드민턴, 등산, 밴드 등 다양한 취미 모임도 결성되어 일상적인 상호작용 및 공동학습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도 거산초

의 폐교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교육혁신 운동을 계기로 거산초, 송남초, 송남중 교사와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대표단, 아버지 모임 대표단, 마을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로, 지역교육 의제를 비롯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모든 활동을 상호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공동체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는 학교와 마을, 주민과 주민, 마을과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마을행사는 연중 4회 개최하는 송악놀장과 매해 10월에 개최하는 송악마을예술제로, 마을 주민들 스스로 힘과 창조성으로 만들어가는 송악마을교육공동체의 대표적 축제이다. 송악놀장은 '듣고 놀장'(버스킹 공연 : 송남, 거산 아이들의 춤과 음악공연, 반디 아이들 공연, 송남교사밴드 공연), '먹고 놀장'(송악희망장학금 송악 아빠들의 먹거리 부스), '만들어 놀장'(캘리, 코사지, 조각그림, 요리체험 등), '나누며 놀장'(수공예 부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벼룩시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행사에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참여하여 즐김과 화합, 협력을 공유한다.

다섯째, 정보공유 방식과 관련하여, 사례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관련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 등 상호소통 방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조사결과 현재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조직 및 기관별로 각각 밴드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 규모와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밴드는 송남초(320명)와 송남중(207명), 송악동네사람들(500여명), 고랑이랑 협동조합(700여 명) 등이 있다. 관련 주체들은 이 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교류 및 공유, 다양한 지역 주체와 관련된 의견제시 및 토론 등 상호작용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활동 촉진 기제

지역혁신론의 관점에서는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 교류 및 학습 네트워크의 질적 효과의 창출 여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매개기관)의 존재 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Kim et al., 2009). 따라서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있어 이러한 기구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어떻게 탄생,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사례대상의 형성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 초기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이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이다.

이 센터는 당시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거산초 폐교반대 운동이 성공한 후 공교육 혁신 모델이 적용되면서 학교 안의 돌봄과 학교 밖의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필요하다는 인식과 노력의 첫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센터가 담당하였던 매개·촉진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송악희망교육네트워크'와 사회적 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등이 상호협력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매개·촉진기구의 등장과 변화과정,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 마을의 변화와의 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송악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지역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마을의 사회, 경제, 교육·문화, 생태환경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및 공동학습 등이 활발하게 촉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변화의 현황을 지역복지, 주민공동체, 사회적 경제, 교육·문화적 욕구, 생태환경 등 모두 5가지 측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 분석 틀은 지역혁신 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삶의 질 제고'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시된 것이다.

Table 3. Changes in community during development of maeul learning communities

| Category | Highlights |
|---|---|
| Increased community-based welfare services | - Banditburi community children center: Afterschool childcare service<br>- Obyong-io: Volunteer food service for vulnerable populations<br>- Songak-nuri: Volunteer home repair service<br>- Songak-heemang scholarship: School uniform support for new middle school students<br>- Kkumsadari: Financial support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career camps<br>- Additional community-based programs (e.g., elderly care and healthcare programs) in development |
| Boost for resident group activities | - Dad groups at Geosan and Songak Elementary Schools and Songak Middle School<br>- Various hobby groups (e.g., soccer, badminton, cinema, and mountaineering) within dad groups<br>- Book club for parents' picture book reading, Solbaram traditional percussion band, theater group, Tainlak percussion band, Cheonmugeuk taekwondo club, Songak SSC (for table tennis, soccer, and foot-volleyball), Songak forest school (e.g., forest guide and therapy), etc. |
| Expansion of social economy | -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ocial Co-op, People of Songak Neighborhood, Gorang-irang Co-op, Damppuk Co-op, Energy-gongbang Co-op, Darami-maeul Farmers Co-op, Songakgol Farmers Co-op, Gyeoreo Bee Keepers Co-op, Eco-friendly School Food Producers Co-op, Happy Farmers, etc. |

| Category | Highlights |
|---|---|
| | - Community-based circular economy: Nolda Gage, Suyo Kkebijang, community market with festival, etc. |
| Fulfilment of social / cultural needs | - Community learning and sharing: Learning from Neighborhood Sisters, Natural Table, lectures in humanities, etc.<br>- Maeul Is School programs: Youth Maeul School, Maeul Career Academy, career internships, etc.<br>- Fun Folk-tale Listening, Book Art, Book Market, Overnight Library Camp with Dad, Cinema Club for Parents and Residents, etc.<br>- Various community art clubs (e.g., theater club) and fair travel programs<br>- Songaknoljang community festivals (4 times a year) and Songak Maeul Art Festival (annually in October)<br>- Farming and ecological experiential programs and farm culture programs, etc. |
|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 | - Eco-friendly farming-based ecological environment project implemented by Eco-friendly Farming Institute, Hansalim local producers' group, etc. (expanding from 30+ to 80+ farms)<br>- Various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offered by ecologically-consciou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e.g., Haemilsup Co-op and Damppuk Co-op) |

1) 지역복지 기반의 확대

사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은 크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과 어르신·장애인 돌봄 사업, 일반 학생 돌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지역에서 마을 책임 하에 공식적인 돌봄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당시 IMF 이후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위기의 가정이 급증하면서 조부모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수가 송남초의 경우 70% 내외일 정도로 상당한 수를 차지하자, 지역 단위의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해결방안으로 설립된 곳이'반딧불이 교실'(이하 반디)이라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이었다.

반디는 당시 조손가정이 급증한 사례지역의 특성상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 각성한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 기반의 첫 공식 돌봄 기관이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설립 당시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여 명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와 지역주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하여 3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원봉사체계로 운영되었다. 현재도 센터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한 핵심 주체 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 다른 돌봄 사업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의 한 핵심 주체인 지역의 한 종교기관이 주도하는 '오병이어'라는 '반찬 봉사'인데, 마을 만들기 운동 초기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 1회씩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활

동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부터 ‘송악누리’라는 집수리 봉사모임도 결성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지역 단위의 복지기반 확충이라는 의제가 제시되면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돌봄 사업과 마을 의료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살핀 지역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과 어르신·장애인 돌봄 사업이라면 지역 내 3개 학교의 ‘아빠 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전액을 해당 학교를 통하여 지원했던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편적 돌봄 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해마다 진행되어 왔는데, 기금은 해마다 개최되는 ‘송악희망장학금 마련 먹거리 장터’와 주민 후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교복 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꿈사다리’라는 중학생 대상 진로캠프를 방학 중에 2주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다라미마을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4개의 영농조합법인과 공동경작 공동체인 ‘즐거운 농부들’도 생산물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기부하고 있다.

### 2)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인 주민모임 활성화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련 주체 간 상호작용 및 공동학습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공동체(모임)의 자발적 결성을 촉진하였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주체 간 상호작용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대표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과 마을의 열린 공간인 ‘놀다가게’, 솔향누리도서관,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송악교회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촉진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공동의 관심 분야를 추구하는 모임에서부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모임들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관내 3개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아빠 모임이 결성되었는데, 이 모임 내에서는 축구, 배드민턴, 영화, 등산 등 다양한 취미 모임들이 결성되었고, 마을 단위에서는 숲 해설과 숲 치료 및 놀이, 생태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송악 숲 학교’, ‘솔바람 풍물패’, ‘우정공 마을연극단’, 난타와 타악기 그룹 ‘타인락’, ‘천무극 태권도 모임’, 탁구와 축구, 족구, 배드민턴 모임인 ‘송악 SSC 클럽’ 등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상호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대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정에서 촉진된 주체 간 상호작용의 가시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현재 사례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재료

로 하는 반찬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고랑이랑'과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담뿍', 적정기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송악에너지공방' 등은 모두 2012년 농어촌희망교육공동체사업인 '송악온마을교육공동체(마을의 학교다) 사업'과 마을의제 찾기 워크숍을 통하여 제시되고 실천된 사회적 경제 모델들이다.

또한 사례지역에는 마을 공동의 필요를 위해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만들어가는 마을순환경제의 장으로서 '놀다가게', '수요깨비장', '송악놀장'이라고 명명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송악동네사람들'이 운영하는 무인카페인 '놀다가게'는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차와 먹거리,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선순환 경제 실천의 장이자,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 배움터, 모임방 등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의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와 김장철 절임 배추 사업, 농사·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라미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하여 한살림에 공급하는 '송악골 영농조합법인', '겨레벌꿀 영농조합법인', '아산시친환경학교급식생산자 영농조합법인' 등도 사례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경제영역의 공동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해마다 법인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등에 무상 제공하고 법인의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6가구의 귀촌인이 결성한 공동경작 공동체인 '즐거운 농부들'도 1,000여 평의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작물 수입금 전액을 지역 내 장학금 및 빵 급식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 4) 교육, 문화적 욕구의 충족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은 주민들과 학생 등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본격적으로 마을 단위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 해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2013년 '농어촌희망교육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이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본격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에서의 배움과 나눔', '마을이 학교다', '마을문화예술모임', '마을공정여행', '마을장처와 축제', '마을순환경제의 장' 등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에서의 배움과 나눔' 사업은 다양한 문화의 힘을 지닌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배우자는 취지로 개설되었는데, '마을 언니에게 배우자', '자연밥상', '인문학 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마을이 학교다'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마을학교, 마을진로아카데미, 진로 인터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중 4회 개최하는 송악놀장과 10월에 개최하는 송악마을예술제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과 창조성으로 만들어가는 송악마을교육공동체의 대표적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솔향글누리 도서관과 '아빠 모임' 내 각종 모임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육·문화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5) 건강한 생태환경의 조성

사례지역에 조성된 건강한 생태환경은 친환경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송악지역은 아산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본격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오리농법에 기반한 수도작 친환경 농업을 도입하였다. 당시 마을발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였던 송악교회가 30여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연구회'를 결성, 송악지역을 친환경 농업에 기반한 생태환경 마을로 바꾸기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년 친환경농업연구회 회원 농가들이 생산한 유기농 쌀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송남초 학교 급식에 무상으로 공급되었다. 이는 아이들과 함께 생산한 유기농 쌀을 학교 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례지역의 친환경 농업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공교육 내에 다양한 환경생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거산초와 송남초에서 마을 참여 기반으로 운영 중인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은 공교육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지역 단위에서는 생태환경에 기반한 교육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해밀숲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담뿍' 등 환경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등장하여 도시민들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송악지역에서는 약 80여 가구가 한 살림 공동체를 형성하여 수도작과 채소, 과일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역혁신론에 입각하여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 지역의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농촌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교육, 생태환경 등 전 영역에 걸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먼저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 관련하여 첫째,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시작된 배경은 2001년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었던 '거산초 폐교반대 운동'의 경험과 IMF 이후 급증한 조손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마을 단위의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온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생성되면서 마을의 필요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실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을의 필요를 의제화하고 이를 마을 단위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각성한 주민, 즉 혁신 주체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혁신 주체들은 지역공동체 운동의 핵심 의제 중 하나를 '교육'으로 인식하고 거산초 폐교반대와 마을 단위의 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각성한 주민들이다. 셋째,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 돌봄 경험은 학교 안 돌봄, 즉 공교육 혁신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학교와 마을의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첫 성과로 재개관된 '솔향누리도서관'은 학교와 마을,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생, 주민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넷째, 주체 간 상호작용의 촉진은 공간과 프로그램, 주민공동체(모임), 공동체 행사, 정보공유 채널 등 핵심 혁신 요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작동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상호 교류 및 공동학습의 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매개·촉진기구가 지역 단위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 초기부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구로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했었고, 이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과 교육 관련 혁신 주체들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송악지역 마을교육네트워크'가 매개·촉진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지역 단위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사회, 경제, 교육·문화, 생태환경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변화와 관련하여, 첫째, 인구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 근교라는 지리적 이점, 농·산촌이라는 양호한 생태환경 그리고 건강한 지역 단위의 교육, 문화, 경제 등의 인프라, 연대와 협력의 문화 등이 조성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확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단위 복지기반이 형성, 확충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의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마을 학생에 대한 보편적 돌봄 문화와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고, 향후 지역의 필요에 대비한 노인 돌봄 및 마을 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 중에 있다.

셋째, 활발한 상호작용과 공동학습 등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공동체(모임)들을 태동시켰고, 이러한 공동체들은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제를 발굴해내고 공론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대와 활성화가 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푸드, 적정기술, 생태환경 관련 체험과 교육 등의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마을순환경제의 장으로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공동체 기반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들이 법인 정체성에 입각한 고유의 사업 기반 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단체나 사업체 경우도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에 자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지역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마을에 개설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축제의 장은 주체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농촌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이 친환경 농업과 지역 교육혁신을 핵심 의제로 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송악마을교육공동체 형성 활동은 학교와 마을 간의 상호협력 관계에 기반한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넘어 지역의 사회, 경제, 교육·문화, 생태환경 등 전 영역에 거친 변화에 상당히 발전적인 영향을 끼친 종합적인 지역혁신 활동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론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와 지역혁신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Submitted, August. 8, 2019 ; Revised, August. 18, 2019 ; Accepted, August. 21, 2019]

## References

1. Cooke. P., M. G. Uranga, and G. Etxebarria. 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4-5): 475-491. (https://doi.org/10.1016/S0048-7333(97)00025-5)
2. Freeman. C. 1987. Technology Policy and Economic Performance: Lessons from Japan, Frances Pinter.
3. Kim, Y. C., Y. T. Kang, Y. R. Kim, Y. S. Cho, and B. G. Lee. 2016. Overseas Case Study and Policy Direction Study on Village Education Community,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4. Kim, Y. L. 2015. A Theoretical Approach for Community-based Learning: Applying Principles from Complexity Science,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Governance. Korea Journal of Education Administration. 33(2): 259-287.
5. Kang, Y. T. and J. S. Kim. 2012. A Study on Partnership of Schools and Communities: A Case of Hongsung-Gun Hongdong-Myun. The Journal of Research Education. 43: 27-49.
6. Kim, J. S. and H. S. Lee.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Village Schools based on a Conceptual Map.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2): 73-107.
7. Ko, K. H. 2017.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for Promoting the Academic-Industrial Knowledge Transfer System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7): 599-610.

8. Park, H. C. 2009. Impact of School Factor, Regional Factor and School-community Partnership on Learner Participation in School Lifelong Education. Hongik University.
9. Seo, Y. S., Y. L. Kim, K. S. Yim, S. K. Hong, G. G. Choi, and T. Cho. 2015. A Study on the Concept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nd Policy Direc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0. Yang, B. C. 2008. Creating the Education Community through the Cooperation of Schools and Communities in the Rural Area: Focusing the “Pull-mu” School Community in Chungnam Hong-dong Area.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4(3): 129-151.
11. Yang, B. C. 2014. The Meaning of ‘Mauel Hakkyo’ for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 1-25.
12. Yang, B. C. 2015. New Collabora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and Lifelong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3): 1-23.
13. Yang, B. C. 2018.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the Maul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and Policy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4(3): 125-152.
14. Kim, Y. Y., M. S. Cha, and H. S. Kang. 2009. Regional Development Police. Hanulbooks.